

Original Article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들의 정형도수 물리치료 분야의 취업 및 진로 선호도 조사

박세진, 김성환, 최규성, 김완기, 박재명¹⁾, 박현식²⁾

남부대학교 일반대학원 물리치료학과, 서울의료원 물리치료실¹⁾, 서울바른병원 물리치료실²⁾

A Study on the Employment and Career Preference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Therapy for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Se-jin Park, Seung-hwan Kim, Kue-seong Choi, Wan-ki Kim, Jae-myung Park¹⁾,
Hyun-sik Park²⁾

Dept. of Physical Therapy, Graduate School, Nambu University

Dept. of Physical Therapy, Seoul Medical Center¹⁾

Dept. of Physical Therapy, Seoul Barun Hospital²⁾

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employment and career preferences for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fo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therapy.

Methods: The subjects were 267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therapy, and a survey was conducted both online and offline.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to analyze employment and career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Results: Interest, temporal satisfaction of education, and the need for special lectures on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sex.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x, grade, and age with regard to whether they go to graduate school related to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and whether to study more about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Conclusions: The educational curriculum must be reinforced for students through systematic curriculum reorganization reflecting their preference for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Key Words:

Preference, Student,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I. 서론

현대사회에서 직업과 직무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분야가 생기고, 그에 따른 세분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Lee, 2018). 이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후 다양한 계열의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된다. 2018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인원은 총 33만 2,839명이었으며, 전체 취업률에 비해 다른 인문사회계열보다 의약계열, 공학 계열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2014년도부터 의약계열에 대한 졸업자, 취업자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n, 2019).

급격한 변화의 의료 환경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료욕구가 다양하여 환자 또는 고객이 병원을 선택권이 높아지면서 의료기관은 예전보다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Go, 2017). 환자는 전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병원을 방문 하고 있다(Kim 등, 2008). 인구구조 및 사회의 변화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병원, 의사 등 공급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필요에 따른, 환자 중심으로 변화되었다(Kim, 2013). 급격한 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 물리치료사들이 주체가 되어 치료 행위를 시행하는 도수치료는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이와 관련된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요구하고 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기능을 회복 및 개선 시키는 역할을 하며(Lee, 2018; Ahn 등, 2002),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치료, 기구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 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약품의 사용, 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물리치료사는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 등을 포함하는 보건의료기관, 운동팀, 산업체의 의무실, 재활 관련 연구소, 보건 관련 공무원, 사회복지 분야 등 다양한 곳에 근무를 한다(KPTA, 2020 November 21.).

세계물리치료사연맹(world confederation for physical therapy: WCPT)에서는 물리치료를 도수/근골격계 물리치료, 신경계 손상 물리치료, 소아 물리치료, 흉부 물리치료, 산부인과 물리치료 스포츠 물리치료 분과 등으로 분류하였다(World Physiotherapy, 2020 November 21).

정형도수 물리치료는 도수 기법 및 치료적 운동을 포함한 특수한 치료방법이며, 임상추론을 기반으로 신경 및 근골격계 문제에 대한 관리를 하는 물리치료

분야이다(IFOMPT, 2020 November 21). 또한,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해부학 및 생체역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관절가동범위, 통증완화 등 신체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Wolf와 Brault, 2015; Pettman, 2007).

Kim과 Park(2004)은 소득의 증가, 다양한 스포츠 활동, 의료서비스 환경의 변화로 도수치료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일반인, 환자에 대한 도수치료 수요의 증가뿐만 아니라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문 분야 또한 도수치료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Park, 2012). 추가적으로 Kim(2014)과 Kim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도수치료에 관심이 가장 많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은 도수치료를 많이 선호하고 진로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에 비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있어 한정적이고 물리치료 분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있었으며(Park, 2012), 학부과정에서 학생들은 현재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한 교육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Kim 등, 2004).

Kim과 Lee(2014)는 교과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학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교과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치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과 과정인 정형 도수 물리치료에 대한 교육 만족도 및 선호도를 알아보고,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진로 선택에 대한 전공분야 선호도 연구(Lee, 2018)는 있지만, 현재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한 선호도 조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한 학생들의 진로 선호도를 조사 후 학부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방향성 제시, 효과적인 진로 및 취업결정에 대해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기간

본 연구는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광주에 소재한 대학들의 물리치료학과 학생 총 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회수하여 분류한 후 연구 도중에 발생한 무응답 및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30부를 제외하였으며 최종분석은 총

267명이었다.

2.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선행 연구된 물리치료의 직업 인식도(Park, 2013)와 진로선호도(Kim 등, 2005)에 대한 자료를 통해 Lee(2018)의 설문을 참고하여 3부분으로 나누어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에 관한 3문항, 취업분야에 대한 설문 3문항, 정형도수 물리치료 선호도 관련 설문 6문항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취업분야 설문 문항, 정형도수 물리치료 선호도 설문 문항은 자가보고식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진행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아니다' 2점, '매우 아니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정형도수 물리치료 선호도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643이었다.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α = .60 이상이 요구되므로, 신뢰도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어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정 및 보완된 설문지는 물리치료학과 교수 1명과 임상 10년차 경력을 가진 물리치료사 2명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측정항목의 내적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이용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값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관하여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정형도수 물리치료 선호도에 대한 사항에서 성별, 학년, 임상(현장) 유무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실행하였으며,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준은 α = .05로 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로는 여성이 168명(62.9%)으로

남성 99명(37.1%) 보다 많았으며 학년으로는 1학년 71명(26.6%), 2학년 67명(25.1%), 3학년 72명(27.0%), 4학년 57명(21.3%)으로 구성되었다. 나이는 20~23세 204명(76.4%), 24~26세 60명(22.5%), 27~29세 3명(1.1%)로 20~23세가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Division	Number	Percent(%)
Sex	Male	99	37.1
	Female	168	62.9
Grade	Freshman	71	26.6
	Sophomore	67	25.1
	Junior	72	27.0
Age (yrs)	Senior	57	21.3
	20~23	204	76.4
	24~26	60	22.5
	27~29	3	1.1
Total		267	100%

2. 물리치료 취업에 대한 선호도

1) 물리치료 취업분야 선호도

물리치료 취업분야 선호도는 성별,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5$), 나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성별 : $X^2 = 11.177$ / $p = .011$, 학년 : $X^2 = 33.895$ / $p = .000$).

성별 항목에서 '정형도수 물리치료'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학년으로 구분하였을 때는 1학년 '정형도수 물리치료' 26명(9.7%), 2학년 '스포츠 물리치료' 25명(9.4%), 3학년 '정형도수 물리치료' 43명(16.1%), 4학년 '신경계 물리치료' 25명(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나이 항목에서는 '정형도수 물리치료'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Table 2).

2) 근무 지역 선호도

근무 지역 선호도는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5$), 성별과 나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학년 : $X^2 = 21.514$ / $p = .043$).

성별 항목에서 남성의 경우는 '수도권'이 38명(14.2%)으로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 22명(8.2%), '서울' 19명(7.1%), '상관없다' 16명(6.0%), '지방중소도시' 4명(1.5%)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도 '수도권'이 72명(27.0%)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38명(14.2%), '광역시' 27명(10.1%), '상관없다' 21명(7.9%), '지방중소도시' 10명(3.7%)

Table 2.
Preference in the field of physical therapy employment

		Neurological physical therapy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Sports physical therapy	Physical agents	Total
Sex	Male	15(4.9) ^a	54(20.2)	25(9.4)	5(1.9)	99(37.1)
	Female	48(18.0)	62(23.2)	41(15.4)	17(6.4)	168(62.9)
Grade	Freshman	15(4.9)	26(9.7)	22(8.2)	8(3.0)	71(26.6)
	Sophomore	12(4.5)	24(9.0)	25(9.4)	6(2.2)	67(25.1)
	Junior	11(4.1)	43(16.1)	11(4.1)	7(2.6)	72(27.0)
	Senior	25(9.4)	23(8.6)	8(3.0)	1(.4)	57(21.3)
Age (yrs)	20~23	50(18.7)	79(29.6)	56(21.0)	19(7.1)	204(76.4)
	24~26	13(4.9)	35(13.1)	9(3.4)	3(1.1)	60(22.5)
	27~29	0(0.0)	2(0.7)	1(0.4)	0(.0)	3(1.1)

^aNumber(%), Sex $X^2=11.177 / df=3 / p=.011$, Grade $X^2=33.895 / df=9 / p=.000$, Age $X^2=9.650 / df=6 / p=.140$

Table 3.
Work area preference

		Seoul	Capital area	Metropolitan city	small&medium sized city	No matter	Total
Sex	Male	19(7.1) ^a	38(14.2)	22(8.2)	4(1.5)	16(7.5)	99(37.1)
	Female	38(14.2)	72(27.0)	27(10.1)	10(1.9)	21(7.9)	168(62.9)
Grade	Freshman	13(4.9)	24(9.0)	17(6.4)	3(1.1)	14(5.2)	71(26.6)
	Sophomore	23(8.6)	24(9.0)	12(4.5)	2(.7)	6(2.2)	67(25.1)
	Junior	11(4.1)	36(13.5)	7(2.6)	6(2.2)	12(4.1)	72(27.0)
	Senior	10(3.7)	26(9.7)	13(4.9)	3(1.1)	5(1.9)	57(21.3)
Age (yrs)	20~23	46(17.2)	81(30.3)	38(14.2)	11(4.1)	28(10.5)	76.4
	24~26	11(4.1)	28(10.5)	10(3.7)	3(1.1)	8(3.0)	60(22.5)
	27~29	0(.0)	1(.4)	1(.4)	0(.0)	0(.0)	3(1.1)

^aNumber(%), Sex $X^2=2.966 / df=4 / p=.563$, Grade $X^2=21.514 / df=12 / p=.043$, Age $X^2=3.101 / df=8 / p=.928$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 별 항목에서는 전 학년이 각각 1학년 24명(9.0%), 2학년 24명(9.0%), 3학년 36명(13.5%), 4학년 26명(9.7%)으로 '수도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이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에도 각각 81명(30.3%), 28명(10.5%)으로 '수도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3).

3) 근무하고 싶은 병원 선호도

근무하고 싶은 병원 선호도는 성별, 학년, 나이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 학년, 나이로 구분하였을 때 각각 남성 67명(25.1%), 여성 119명(10.5%), 1학년 55명(20.6%), 2학년 44명(16.5%), 3학년 46명(17.2%), 4학년 41명(15.4%), 나이에서는 모두 '종합병원 이상'이 가장 높은 선호도가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통적으로 '재활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Table 4).

3.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한 선호도

1)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한 흥미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한 흥미는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학년과 나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성별 : $X^2=27.430 / p=.000$).

성별 항목에서 남성의 경우는 '그렇다' 53명(19.9%)으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 27명(10.1%), '보통이다' 17명(6.4%), '아니다' 2명(.7%), '매우 아니다' 0명(0.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그렇다'가 75명(28.1%)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 69명(25.8%), '매우 그렇다' 15명(5.6%), '아니다' 7명(2.6%), '매우 아니다' 2명(0.7%)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전 학년이 각각 1학년 36명(13.5%), 2학년 33명(12.4%), 3학년 30명(11.2%), 4학년 29명(10.9%)으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Table 4.
Hospital preference to work

		beyond general hospital	Rehabilitation hospital	Nursing hospital	Oriental medicine hospital	Total
Sex	Male	67(25.1) ^a	21(7.9)	2(.7)	9(3.4)	99(37.1)
	Female	119(44.6)	38(14.2)	2(.7)	9(3.4)	168(62.9)
Grade	Freshman	55(20.6)	9(3.4)	3(1.1)	4(1.5)	71(26.6)
	Sophomore	44(16.5)	18(6.7)	1(.4)	4(1.5)	67(25.1)
	Junior	46(17.2)	19(7.1)	0(.0)	7(2.6)	72(27.0)
Age (yrs)	Senior	41(15.4)	13(4.9)	0(.0)	3(1.1)	57(21.3)
	20~23	143(53.6)	45(16.9)	4(1.5)	12(2.2)	204(76.4)
	24~26	41(15.4)	14(5.2)	0(.0)	5(1.9)	60(22.5)
	27~29	2(.7)	0(.0)	0(.0)	1(.4)	3(1.1)

^aNumber(%), Sex $X^2=1.719 / df=3 / p=.633$, Grade $X^2=12.094 / df=9 / p=.208$, Age $X^2=5.560 / df=6 / p=.474$

Table 5.
Interest in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Total
Sex	Male	27(10.1) ^a	53(19.9)	17(6.4)	2(.7)	0(.0)	99(37.1)
	Female	15(5.6)	75(28.1)	69(25.8)	7(2.6)	2(.7)	168(62.9)
Grade	Freshman	8(4.9)	36(13.5)	24(15.4)	2(.7)	1(.4)	71(26.6)
	Sophomore	7(2.6)	33(12.4)	27(10.1)	0(.0)	0(.0)	67(25.1)
	Junior	17(6.4)	30(11.2)	20(7.5)	4(1.5)	1(.4)	72(27.0)
Age (yrs)	Senior	10(3.7)	29(10.9)	15(5.6)	3(1.1)	0(.0)	57(21.3)
	20~23	27(10.1)	93(34.8)	74(27.7)	8(3.0)	2(.7)	204(76.4)
	24~26	14(5.2)	33(12.4)	12(4.5)	1(.4)	0(.0)	60(22.5)
	27~29	1(.4)	2(.7)	0(.0)	0(.0)	0(.0)	3(1.1)

^aNumber(%), Sex $X^2=27.430 / df=4 / p=.000$, Grade $X^2=14.034 / df=12 / p=.299$, Age $X^2=10.891 / df=8 / p=.208$

‘매우 아니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이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5).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로 나누었을 경우, 20~23세는 ‘보통이다’ 88명(33.0%), ‘아니다’ 58명(21.7%), 24~26세는 ‘보통이다’ 23명(8.6%) ‘그렇다’ 22명(8.2%)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2)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한 교육의 시간적 만족도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한 교육의 시간적 만족도는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학년과 나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성별 : $X^2=14.396 / p=.006$).

성별 항목에서 남성은 ‘보통이다’ 37명(13.9%), ‘그렇다’ 30명(1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보통이다’ 74명(27.7%), ‘아니다’ 50명(18.7%)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 항목에서는 1학년은 ‘보통이다’ 29명(10.9%), ‘아니다’ 25명(9.4%) 순으로 나타났으며, 2학년은 ‘보통이다’ 27명(10.1%), ‘그렇다’ 17명(6.4%), 3학년은 ‘보통이다’ 26명(9.7%), ‘그렇다’ 22명(8.2%), 4학년은 ‘보통이다’ 29명(10.9%), ‘아니다’ 15명(5.6%)

3)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한 교육 및 특강의 필요성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한 교육 및 특강이 필요성의 결과는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학년과 나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서 남성은 ‘그렇다’ 49명(18.4%), ‘매우 그렇다’ 33명(1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그렇다’ 104명(39.0%), ‘보통이다’ 32명(12.0%)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나누었을 경우, 1학년은 ‘보통이다’ 45명(16.9%), ‘매우 그렇다’ 13명(4.9%) 순으로 나타났으며, 2학년은 ‘그렇다’ 43명(11.6%), ‘보통이다’ 13명(4.9%), 3학년은 ‘그렇다’ 34명(12.7%), ‘매우 그렇다’ 23명(8.6%), 4학년은 ‘그렇다’ 31명(10.9%), ‘매우 그렇다’ 17명(6.4%)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로

Table 6.

Time satisfaction with education for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Total
Sex	Male	13(4.9) ^a	30(11.2)	37(13.9)	18(6.7)	1(.4)	99(37.1)
	Female	8(3.0)	31(11.6)	74(27.7)	50(18.7)	5(1.9)	168(62.9)
Grade	Freshman	4(1.5)	11(4.1)	29(10.9)	25(9.4)	2(.7)	71(26.6)
	Sophomore	9(3.4)	17(6.4)	27(10.1)	13(4.9)	1(.4)	67(25.1)
	Junior	7(2.6)	22(8.2)	26(9.7)	15(5.6)	2(.7)	72(27.0)
	Senior	1(.4)	11(4.1)	29(10.9)	15(5.6)	1(.4)	57(21.3)
Age (yrs)	20~23	16(6.0)	37(13.9)	88(33.0)	58(21.7)	5(1.9)	204(76.4)
	24~26	4(1.5)	23(8.6)	22(8.2)	10(3.7)	1(.4)	60(22.5)
	27~29	1(.4)	1(.4)	1(.4)	0(.0)	0(.0)	3(1.1)

^aNumber(%), Sex $X^2=14.396 / df=4 / p=.006$, Grade $X^2=16.567 / df=12 / p=.167$, Age $X^2=15.011 / df=8 / p=.059$

나누었을 경우, 20~23세는 ‘그렇다’ 119명(44.6%), ‘매우 그렇다’ 43명(16.1%), 24~26세는 ‘그렇다’ 34명(12.7%) ‘매우 그렇다’ 17명(6.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7).

4)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해 더 공부할 생각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해 더 공부할 생각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는 성별, 학년, 나이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성별 : $X^2=29.719 / p=.000$, 학년 : $X^2=34.749 / p=.001$, 나이 : $X^2=26.284 / p=.001$).

성별에서 남성은 ‘그렇다’ 41명(15.4%), ‘보통이다’ 37명(13.9%)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보통이다’ 72명(27.0%), ‘그렇다’ 65명(24.3%)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에서는 1학년은 ‘보통이다’ 31명(11.6%), ‘아니다’ 20명(7.5%) 순으로 나타났으며, 2학년은 ‘보통이다’ 32명(12.0%), ‘그렇다’ 26명(9.7%), 3학년은 ‘그렇다’ 37명(13.9%), ‘보통이다’ 23명(8.6%), 4학년은 ‘그렇다’ 29명(10.9%), ‘보통이다’ 23명(8.6%)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로 나누었을 경우, 20~23세는 ‘보통이다’ 90명(33.7%), ‘그렇다’ 72명(27.0%), 24~26세는 ‘그렇다’ 33명(12.4%) ‘보통이다’ 18명(6.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8).

5) 정형도수 물리치료 관련 대학원에 진학 여부

정형도수 물리치료 관련된 대학원에 진학여부의 결과는 성별, 학년, 나이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성별 : $X^2=17.755 / p=.001$, 학년 : $X^2=36.256 / p=.000$, 나이 : $X^2=17.421 / p=.026$).

성별에서 남성은 ‘보통이다’ 35명(13.1%), ‘아니다’ 24명(9.0%)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아니다’ 77명(28.8%), ‘보통이다’ 49명(18.4%)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서 1학년은 ‘아니다’ 77명(9.4%), ‘보통이다’ 23명(8.6%) 순으로 나타났으며, 2학년은 ‘아니다’ 28명(9.4%), ‘보통이다’ 27명(10.1%), 3학년은 ‘아니다’ 28명(9.4%), ‘보통이다’ 13명(4.9%), 4학년은 ‘보통이다’ 21명(7.9%), ‘아니다’ 20명(7.5%)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7.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education for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Total
Sex	Male	33(12.4) ^a	49(18.4)	15(5.6)	2(.7)	0(.0)	99(37.1)
	Female	29(10.9)	104(39.0)	32(12.0)	2(.7)	1(.4)	168(62.9)
Grade	Freshman	13(4.9)	45(16.9)	12(4.5)	1(.4)	0(.0)	71(26.6)
	Sophomore	9(3.4)	43(16.1)	13(4.9)	2(.7)	0(.0)	67(25.1)
	Junior	23(8.6)	34(12.7)	15(5.6)	0(.0)	0(.0)	72(27.0)
	Senior	17(6.4)	31(11.6)	7(2.6)	1(.4)	1(.4)	57(21.3)
Age (yrs)	20~23	43(16.1)	119(44.6)	38(14.2)	3(1.1)	1(.4)	204(76.4)
	24~26	17(6.4)	34(12.7)	8(3.0)	1(.4)	0(.0)	60(22.5)
	27~29	2(.7)	0(.0)	1(.4)	0(.0)	0(.0)	3(1.1)

^aNumber(%), Sex $X^2=14.396 / df=4 / p=.006$, Grade $X^2=16.567 / df=12 / p=.167$, Age $X^2=15.011 / df=8 / p=.059$

Table 8.
Thinking to study more about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Total
Sex	Male	38(14.2) ^a	43(16.1)	10(3.7)	7(2.6)	1(.4)	99(37.1)
	Female	28(10.5)	62(23.2)	63(23.6)	13(4.9)	2(.7)	168(62.9)
Grade	Freshman	9(3.4)	30(11.2)	25(9.4)	6(2.2)	1(.4)	71(26.6)
	Sophomore	10(3.7)	28(10.5)	28(10.5)	1(.4)	0(0)	67(25.1)
	Junior	26(9.7)	26(9.7)	10(3.7)	9(3.4)	1(.4)	72(27.0)
	Senior	21(7.9)	21(7.9)	10(3.7)	4(1.5)	1(.4)	57(21.3)
Age (yrs)	20~23	38(14.2)	80(30.0)	68(25.5)	15(5.6)	3(1.1)	204(76.4)
	24~26	26(9.7)	24(9.0)	5(1.9)	5(1.9)	0(.0)	60(22.5)
	27~29	2(.7)	1(.4)	0(.0)	0(.0)	0(.0)	3(1.1)

^aNumber(%), Sex $X^2=29.719$ / $df=4$ / $p=.000$, Grade $X^2=34.749$ / $df=12$ / $p=.001$, Age $X^2=26.284$ / $df=8$ / $p=.001$

나이에서 20~23세는 ‘보통이다’ 86명(32.2%), ‘보통이다’ 72명(22.8%), 24~26세는 ‘보통이다’ 22명(8.2%) ‘아니다’ 15명(5.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9).

6) 정형도수 물리치료 분야 비전

정형도수 물리치료 분야 비전에 대한 설문 결과는 나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성별, 학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나이 : $X^2=15.642$ / $p=.048$).

성별, 학년, 나이 모두에서 ‘아니다’ 50명(18.7%), 76명(28.5%), 27명(10.1%), 35명(13.1%), 36명(13.5%), 28명(10.5%), 90명(33.7%), 36명(1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 24명(9.0%), 60명(22.5%), 25명(9.4%), 26명(9.7%), 17명(6.4%), 16명(6.0%), 72명(27.0%), 10명(3.7%)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10).

본 연구는 물리치료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 나이에 따른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한 진로 선호도를 조사하여 취업 및 학부과정에 효과적인 진로 교육의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Park(2012)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진로 선호도는 정형도수 물리치료, 신경계 물리치료, 스포츠 물리치료 순 이었고, 본 연구에서 성별, 학년, 나이에 따른 진로 선호도는 정형도수 물리치료, 스포츠 물리치료, 신경계 물리치료 순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 모두 정형도수 물리치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한국 및 세계적인 물리치료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근무하고 싶은 선호 병원에 대한 질문에서는 성별, 학년, 나이에 상관없이 종합병원 이상에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Lee 등(2018)의 연구와 일치한다. 보건학과계열을 선택하여 입학한 학생들은 높은 취업을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Lee와 Lee, 2018), 이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및 직장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IV. 고 찰

Table 9.
Thinking of entering graduate school related to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Total
Sex	Male	10(3.7) ^a	15(5.6)	35(13.1)	24(9.0)	15(5.6)	99(37.1)
	Female	4(1.5)	15(5.6)	49(18.4)	77(28.8)	23(8.6)	168(62.9)
Grade	Freshman	2(.7)	16(6.0)	23(8.6)	25(9.4)	5(1.9)	71(26.6)
	Sophomore	2(.7)	6(2.2)	27(10.1)	28(10.5)	4(1.5)	67(25.1)
	Junior	7(2.6)	7(2.6)	13(4.9)	28(10.5)	17(6.4)	72(27.0)
	Senior	3(1.1)	1(.4)	21(7.9)	20(7.5)	12(4.5)	57(21.3)
Age (yrs)	20~23	9(3.4)	22(8.2)	61(22.8)	86(32.2)	26(9.7)	204(76.4)
	24~26	5(1.9)	6(2.2)	22(8.2)	15(5.6)	12(4.5)	60(22.5)
	27~29	0(.0)	2(.7)	1(.4)	0(.0)	0(.0)	3(1.1)

^aNumber(%), Sex $X^2=17.755$ / $df=4$ / $p=.001$, Grade $X^2=36.256$ / $df=12$ / $p=.000$, Age $X^2=17.421$ / $df=8$ / $p=.026$

Table 10.

Future perception in the field of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Total(%)
Sex	Male	2(.7) ^a	7(2.6)	24(9.0)	50(18.7)	16(6.0)	99(37.1)
	Female	2(.7)	16(6.0)	60(22.5)	76(28.5)	14(5.2)	168(62.9)
Grade	Freshman	2(.7)	8(3.0)	25(9.4)	27(10.1)	9(3.4)	71(26.6)
	Sophomore	0(0)	2(.7)	26(9.7)	35(13.1)	4(1.5)	67(25.1)
	Junior	1(.4)	7(2.6)	17(6.4)	36(13.5)	11(4.1)	72(27.0)
	Senior	1(.4)	6(2.2)	16(6.0)	28(10.5)	6(2.2)	57(21.3)
Age (yrs)	20~23	4(1.5)	19(7.1)	72(27.0)	90(33.7)	19(7.1)	204(76.4)
	24~26	0(0)	4(1.5)	10(3.7)	36(13.5)	10(3.7)	60(22.5)
	27~29	0(0)	0(0)	2(.7)	0(0)	1(.4)	3(1.1)

^aNumber(%), Sex $X^2=7.091 / df=4 / p=.131$, Grade $X^2=12.980 / df=12 / p=.370$, Age $X^2=15.642 / df=8 / p=.048$

Park(2012)은 3년제, 4년제 대학생 모두 진로에 있어서 정형도수 물리치료를 가장 선호한다고 하였고, Kim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졸업예정자가 가장 관심이 있는 전문 물리치료 영역은 정형도수 물리치료와 관련 있는 근골격계 물리치료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한 흥미 질문의 답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순으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통이다'라는 답이 가장 많았으나, 4학년에서는 '보통이다'를 제외하고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의 합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보다 많게 나타났다. 이런 내용을 보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공부를 해보니 취업 전 학과 교육에서 정형도수 물리치료 내용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느낀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Kim 등(2004)의 연구에서 졸업 예정자가 학부과정 및 임상실습에서 전문물리치료 영역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했다고 답한 것과 일치한다.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한 교육 및 특강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는데 학과 과정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전 학년이 다양한 특강을 통해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해 공부하는 기회를 갖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해 더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가 가장 많았다. 이는 흥미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연계되어 생각해보면 흥미가 있어 이에 추가적으로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해 공부하고 한 것으로 사료된다.

Park 등(2010)은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한 전문물리치료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전문물리치료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3년의 임상경력, 연수와 시험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졸업

하기 전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지 및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특강 및 교육을 추가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관련된 대학원 진학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남성은 '보통이다', '아니다'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아니다', '보통이다'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아니다'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Kim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졸업 후 전문물리치료에 대한 공부를 관련 학회를 통해 공부하고자 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생각해보면 학생들은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한 내용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졸업 후 임상에 나가서 이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에 졸업 전에는 학과 내에서의 특강과 교육, 졸업 후에는 학회를 통해 공부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는 있으나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관련된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는 확실한 긍정의 답이 없는 것이 시간적인 문제인지, 비용의 문제인지, 대학원 정보의 부족 문제로 이러한 답변이 나온 것인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물리치료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종합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맞춰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본인에 맞는 분야를 찾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선호도, 관심 분야에 맞춰서 교육과정에 반영한다면, 학과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졸업 후 취업 및 다른 분야로의 이직에 대한 고민, 선택의 시간, 비용 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Kim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졸업 예정자들은 학부

과정에서의 전문물리치료 관련 교육 수준은 기초과정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물리치료학과 교육과정은 임상실무 보다는 국가고시에 초점이 맞춰 있어 졸업 후 실제 임상에서 실천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학부 과정에서 체계적인 정형도수 물리치료의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비교과 등을 통해 임상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표본을 통해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자가보고식 온라인 설문지로 진행하였으나 설문 방법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물리치료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 연구를 시행하였다.

물리치료 취업분야 선호도는 정형도수 물리치료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한 흥미는 남성이 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한 시간적인 만족도, 특강의 필요도 또한 남성이 더 유의하게 나타났다. 고학년 학생일수록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해 졸업 후 공부를 하고 싶어 하였으나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관련 대학원 진학은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하여 학부 교육 커리큘럼을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Ahn SY, Kim WJ, Huh YB. Working condition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physical therapists. *J Korean Phys Ther.* 2002;14(4):308-322.

Ban SJ. 2018 statistical yearbook for employment of higher education graduates. Chungcheongbuk-do, Korea. 2019:44-45.

Go SM. A study on factors of musculoskeletal healthcare organizations and their effect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r: focusing on health service quality and perceived risk.

KyungHee University. Master thesis. 2017.

Kim HB, Park JW. A strategic study on development processing and master plan of the OMT in Korea. *J Korean Orthop Manu Phys Ther.* 2004;10(1):43-55.

Kim HB, Kim SY, Kim YM. The comparison about a evaluation and treatment concept of the manual therapy techniques. *J Korean Orthop Manu Phys Ther.* 2005;11(1):49-64.

Kim MH, Park C, Seo JB. A study on effects of customer orientation factors in relation to medical services on the values of the services and customer satisfaction. *J Korean Health Serv Manag.* 2008;2(1):1-27.

Kim JS. Survey on satisfaction of outpatients with chronic musculoskeletal pain using physical therapy in north Gyeong-buk. *Journal Digit Convergence.* 2013;11(6):205-212. <http://dx.doi.org/10.14400/JDPM.2013.11.6.205>

Kim JS, Lee DY. A study on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y majors in Gyeong-sang province. *J Digit Converg.* 2014;12(8):389-396. <https://doi.org/10.14400/JDC.2014.12.8.389>

Kim JH, Lee GC, Kwon HS. The study on the interest of professional physical therapy(The undergraduate students of dept. of physical therapy in Busan, Ulsan and Kyungnam). *J Korean Orthop Manu Phys Ther.* 2004;10(1):129-145

KPTA. Physical therapist. http://www.kpta.co.kr_n.d(Retrieved on November 21, 2020).

Lee GJ. A study on the job recognition and career preference of physical therapy major college students. *J Korean Phys Ther Sci.* 2018;25(3):32-42. <https://doi.org/10.26862/jkpts.2018.12.25.3.32>

Lee JC. The study about the job satisfaction and independent establishment of physical therapy of working physical therapist in Gyeongnam region. *J Converg C Technol.* 2018;4(4):123-133. <https://doi->

Park, et al. A Study on the Employment and Career Preference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Therapy for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org/10.17703/JCCT.2018.4.4.123

Lee ML, Lee HC. A study of satisfaction and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in department health scienc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 Ind Assoc. 2018;12(2):137-153.

IFOMPT. OMPT Definition. <https://www.ifompt.org>About+IFOMPT/OMPT+Definition.html>. 2004(Retrieved on November 21, 2020).

Park BS. A study on career preference after gradua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therapy. Eulji university. Master thesis. 2012.

Park HJ, Jung KO, Kyung SH, et al. Attitudes and beliefs of physical therapy students and physical therapists about the system of physical therapy specialists in Korea. J Korean Soc Phys Med. 2010;5(1):101-112.

Park YK. A study on job and task satisfaction of

physiotherapist: Focusing on employees in orthopedic manual therapy part. J Korean Orthop Manu Phys Ther. 2013;19(1):21-31.

Pettman E. A history of manipulative therapy. 2007;15(3):165-174. <https://doi.org/10.1179/106698107790819873>

Wolf CJ, Brault JS. Manipulation, traction and massage. In: Braddom RL,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5th edition, Philadelphia, Elsevier Health Sciences. 2015:347-367.

World Physiotherapy. World Physiotherapy subgroups. <https://world.physio/subgroups>. n.d(Retrieved on November 21, 2020).

논문접수일(Date received) : 2020년 11월 30일

논문수정일(Date Revised) : 2020년 11월 30일

논문게재확정일(Date Accepted) : 2020년 12월 14일